

# VIETWATER HOCHIMINH 2019 호치민 물 산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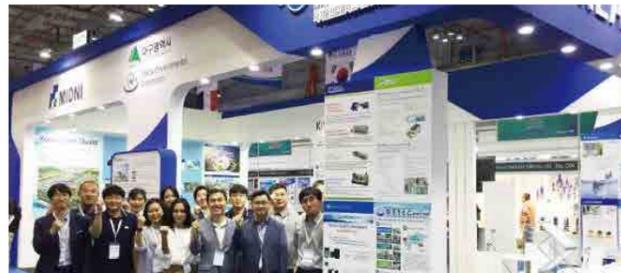


베트남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는 2019 베트남 호치민 물 산업전이 2019년 11.6~8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개최된다. 물 산업전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5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물전시 시리즈 중 하나로 물산업 중 상하수도 자재 및 기술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물산업 분야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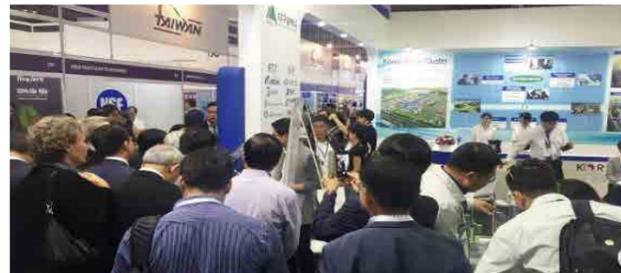
개최기간	2019.11.6.~8(3일간)
전시장소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주최/주관	베트남상하수도협회(VWSA)/UBM(글로벌 전시 주최사)
행사규모	38개 국가 및 지역, 400개 이상의 기업, 10,000m <sup>2</sup> 의 전시공간, 14,000명 이상 방문 예정

현재 베트남은 인근 중국,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선진 기술 도입이 필요한 국가들의 위치적 거점으로 선진국 및 한국 기업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수출 유망 국가 중 하나이다.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베트남 호치민 물산업전 참가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베트남 환경시장 수출판로 개척과 국내 수처리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하여 KWCC와 함께 공동 홍보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공동 홍보부스에서는 KWCC 소개, B2B상담ZONE,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ZONE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 환경 기술을 많은 해외바이어와 베트남 시장에 전하고,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 VIETWATER HOCHIMINH 2018 한국관 전경 |



<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 대구환경공단 (駐) 중국사무소

| 주소 | 중국 강소성 무석시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 전화번호 | 070-4137-8009

수석대표 이종섭 T. +86 132-5510-0919 E. grpine62@naver.com

대표 김기곤 T. +86 186-2606-1194 E. giraffeland@naver.com

# 뉴스레터

NEWSLETTER



대구환경공단(www.dgeic.or.kr)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

2019 제4호 / 통권 제12호



# 중국 이상환경기업 2019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방문

## 1. 2019 국제 물산업 비즈니스 워크숍 참석



| 2019 국제 물산업 비즈니스 워크숍 |

중국 이상(宜兴)환경기업인 강소명현환보과기유한공사(총경리 계옥명), 이상유나이트기계유한공사(동사장 모법량, 부총경리 오용), 이상시우권자동화의표유한공사(총경리 위달)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참관 및 국내·외 환경기업과의 기술 교류회를 위하여 대구를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단은 4일에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대구환경공단과 다이텍연구원이 주관한 국제 물산업 비즈니스 워크숍에 참석하여 중국환경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1:1 기업 매칭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해외 환경기업들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향상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민경섭 대구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각국 물산업 관계기관 및 환경기업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환경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환경정책과 우수한 환경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물산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대구환경공단은 국내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간 매칭, 우수환경기업 플랫폼 확대, 기관간 협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계옥명 강소명현환보 기업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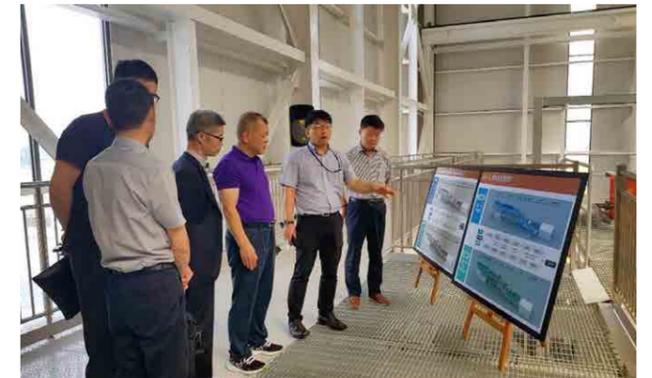
| 민경섭 대구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축사 |

# 중국 이상환경기업 2019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방문

##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 및 한·중 환경기업 기술교류



| 물산업클러스터 비즈니스센터 방문 |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 견학 |

지난 9월 5일 중국 방문단은 달성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였다. 비즈니스센터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방문단은 실증화시설을 견학하고 기업 집적단지에 위치한 미드니(최인중 대표)와 신정기공(오인식 대표)을 방문하였다.

미드니의 산업용 정수처리장치와 신정기공의 밸브, 수문, 펌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방문단은 기술 및 제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향후 기술교류와 업무협약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하였다.

특히 유나이트 모법량 동사장은 미드니 정수처리장치에 대하여 향후 중국 대리점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어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를 방문하여 환경기초시설과 현장 관리 시스템을 견학하고, 하수 처리시설 운영기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어진 간담회를 통하여 한·중 기업간 기술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정을 마무리 지으며 모법량 이상유나이트기계유한공사 동사장은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 기술 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고, 대구의 우수한 환경 기업 기술 및 설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대구환경공단에 감사드리며, 대구환경공단 및 한국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견학 |



|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견학 |

### 중국 절강성 자싱(嘉兴)시 수무투자그룹 유한공사 대구환경공단 방문



| 중국방문단 서부하수처리장 방문 |

중국 자싱(嘉兴)시 환경공기업인 수무투자그룹유한공사(부서기 이국경), 가흥시연합오수처리 유한공사(부총경리 손진걸, 경리 마휘빈), 소흥시수련무역유한공사(부총경리 쉐국창)는 지난 8월 29일 슬러지자원화 및 오수처리장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환경공단을 방문하였다.

중국 환경기업 방문단은 대구환경공단 강형신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공단의 역할과 처리장 운영, 슬러지처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가흥수무투자그룹도 가흥시 공기업으로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였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처리장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방문단은 공단 서부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과 소화조 등을 견학하였다.



| 중국방문단 서부하수처리장 견학 |



| 중국방문단 서부하수처리장 견학 |

### 베트남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8월 11~1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다각화와 수출 증진, 한국-베트남 환경기관 및 기업 간 기술교류회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KWC 입주기업 그린텍, 문창, 삼진정밀, 썬텍엔지니어링, 유성엔지니어링, 지이테크가 참여하였고,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SMEDEC2), 호치민 과학기술정보 통계센터(CESTI), 베트남 환경전문기업(TAI TIEN Company Co, Ltd)을 방문하였다.

한국 방문단은 “한국-베트남 물산업 유관기관 간담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기술 제품 홍보, 입주기업-베트남 환경기업 기술교류회, 베트남 물 시장 동향 및 투자 환경 파악, 1:1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베트남 환경기업 견학”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 하였다.

호치민 과학기술정보통계센터(CESTI)와의 간담회에서는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KWC 입주기업의 업데이트 된 자료 등록을 요청하였고 KWCC와 베트남 법인 간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협의 등 한국의 물산업 신기술 전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환경산업 인프라 견학을 통하여 현재 베트남 환경기술 수요를 파악하였고, 환경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향후 한-베트남 기업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지원센터(SMEDEC2)과의 기술교류회에서는 남러호아이 베트남 남부지역 환경총국장이 베트남 환경정책, 기업접근방식과 법률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KWC 입주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알리는 등 KWC 입주기업들의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과 양국의 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구환경공단은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환경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지 유관기관을 통한 기술 및 제품 수요조사, 베트남 물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초청,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신기술을 베트남 기관 및 기업에게 널리 전파하여 양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한-베트남 환경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



| 호치민 과학기술정보통계센터(CESTI)방문 |

### 중국 환경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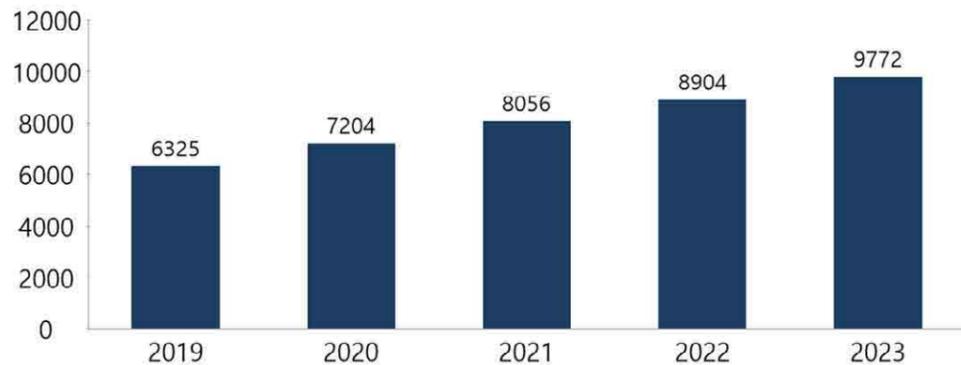
#### 1. 슬러지 처리 기술 비즈니스 기회 확대

- 중국 하수 슬러지 처리량 증가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대
-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국 진출 후 A/S 서비스 등 시장 선점 가능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공장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부유물로 처리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밀도가 높은 물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상층부로 이동하는 침전이 발생한다. 슬러지 침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력이 아닌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심분리기가 사용된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중국슬러지처리연구 및 투자 전략계획분석보고(中国污泥处理处置深度调研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에 따르면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6,325만 톤에서 2023년까지 9,722만 톤 규모로 커져 슬러지 처리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9~2023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 예측  
(단위: 만 톤)



현재 중국 내 슬러지 처리 기술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의 투자도 늘리고 있기에 기술 투자 및 신제품 개발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은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 내 환경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중국 진출 후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 환경 시장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슬러지 기술 수요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대구환경공단은 현재 중국 저장성 자싱시 수무투자그룹유한공사와 슬러지 관련 기술 교류 및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입주기업의 슬러지 처리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한·중 환경기업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구-자싱환경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 중국 환경시장 동향

#### 2. 中 정부,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시행

- 가정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등 일상용품 매출 급증
- 쓰레기 분류 서비스, 쓰레기 소각 등 환경산업 전망 밝음

##### □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시행

지난 6월 6일 중국 발개위(发改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9개 부처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020년 말까지 46개 중점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전국 지급시(地级市)이상 도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쓰레기 분류와 처벌 등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를 시행하여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마른 쓰레기 등 4종으로 분류해서 버리도록 하였다.

##### □ 쓰레기 분리수거 인기 상품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강제로 시행되며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징벌을 피하기 위한 상품들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인기 상품		
가정용 플라스틱 분리수거 쓰레기통 (타오바오 淘宝 전년대비 매출 500% 급증)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배수구 설치용)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 (모바일 앱 예약)

##### □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환경위생 시장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4조 2,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며, 쓰레기 분류 서비스, 환경위생 서비스, 분리수거 관련 설비, 쓰레기 소각,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 배출, 분리 수집, 분류 운반 등에 사용되는 환경 위생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청화대 산하 TusStar(启迪之星)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 무더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쓰레기가 줄고 재생을 위한 중간 처리 공정과 장비 수요가 폭증할 것이며 분리된 쓰레기를 생화학 처리해 비료로 만들거나 생활 에너지원인 메탄가스로 변신시키는 공정 등에도 사업 기회가 많다”고 언급하였다.(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출처: 한중환경산업정보망, KOTRA 해외시장뉴스 >